

당뇨병의 종류와 증상



유 형 준

1. 당뇨병의 종류

당뇨병은 분류를 어떤 관점에서 하느냐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누어진다. 이해가 편하게 돕기 위해 몇 가지로 구분지어 설명한다.

첫째는 나이에 의한 구분이다. 원인이야 무엇이든 15세 이전에 발생하면 소아당뇨병, 그후 발생 연령에 따라 역시 청년형당뇨병, 성인형당뇨병, 노년형당뇨병이라고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나이로만 구분짓는 것은 발병원인, 치료 등과 전연 무관한 것이어서 여러면에서 답답하다. 예를 들어 소아당뇨병만 해도 발생기전에 따라 세부분이 있다.

뒤에 언급하겠지만 인슐린이 거의 안나오는 인슐린의존성당뇨병, 부족하게 나오는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 드물긴 하지만 태어난지 첫 1개월이내에 일과성으로 당뇨병이 지나가는 신생아당뇨병 등으로 셋이나 된다. 즉, 흔히 소아당뇨병이라고 하는 형태속에는 세가지의 다른 성질을 지닌 것들이 포함되는 것이다.

둘째는 당뇨병이 있되 숨어 있는 것인지 증상 등이 밖으로 드러난 것인지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다. 굳이 어려운 한자로 쓴다면 병기(病期)에 따른 형태 등이다. 이 기준에 의해 특수한 자극 검사로나 혈당의 상승이 확인되는 잠복성당뇨병, 식후혈당은 높으나 증상은 없는 화학적당뇨병, 공복혈당도 높고 당뇨병증상도 겹으로 드러나는 현성(顯性)당뇨병을 가질 수 있다.

셋째는 1차적 원인질환이 있고

그에 의해 생기는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 일차성당뇨병, 이차성당뇨병으로 나누는 것이다.

이외에도 학자마다 각각의 관점에 따라 많은 종류의 당뇨병들을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구구각각으로 다르게 당뇨병의 종류를 열거하다 보니 진단, 치료, 의사소통에 많은 곤란이 뒤따르게 되었고, 급기야 1980년 세계보건기구는 표준화된 분류법을 제시하여 다음과 같은 종류의 당뇨병들을 정해놓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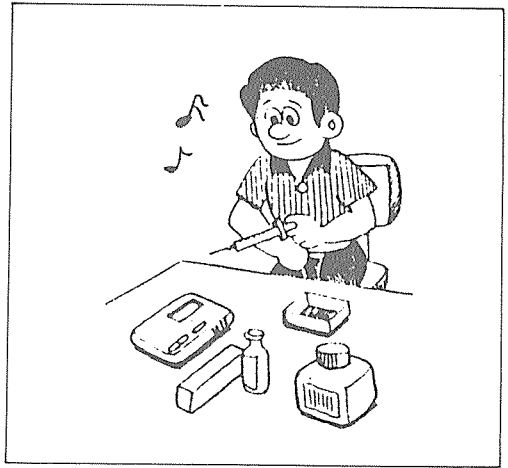
***인슐린비의존성당뇨병[제1형]**

***인슐린비의존성당뇨병[제2형]**

- 비만형인슐린비의존성당뇨병
- 비비만형인슐린비의존성당뇨병
- 젊은 나이에 오는 인슐린비의존성당뇨병

***다른 질병과 관련되어 오는 당뇨병**

- 췌장의 병 : 췌장염, 췌장암, 낭포성섬유종 등
- 내분비의 병 : 뇌하수체기능항진증, 부신피질기능항진증, 갑상선기능항진증, 갈색세포종, 말단비대증, 알도스테론증 등
- 약물 : 이노제, 스테로이드제, 피임약, 갑상선호르몬 등
- 유전질환 : 당원병 등
- 기타 : 영양실조 관련 당뇨병



***내당능장애 :** 당뇨병이라고 당장에는 말할 수 없으나 혈당치가 약간 정상보다 높은 경우이다. 과거에는 경계당뇨병이라는 말도 썼으나 심리적인 부담을 줄뿐 아니라 오랜기간 추적해도 70~80%에서는 확실한 당뇨병으로 진행되지 않아 단지 내당능장애군이라 한다.

***임신당뇨병 :** 평소에는 정상인데 임신을 하면 당뇨병이 생기는 경우로 당뇨병이 있으면서 임신하는 것과는 구분된다.

방금 소개한 세계보건기구의 제안에서 언급된 당뇨병 형태들이 가장 공용되는 당뇨병의 종류들이고 소개한 것 이외에도 꽤 전문적인 형태들이 있다.

이처럼 보는 관점과 표현방식에 따라 다양한 당뇨병종류들 중에서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은 서서히 나타나고 식사·운동·경구혈당강하제라도 관리가 가능하지만 경우에 따라 인슐린주사를 맞기도 한다

제일 널리 알려져 쓰이는 것은 인슐린의존성당뇨병[제1형 당뇨병이라고도 한다]과 인슐린비의존성당뇨병[제2형이라고도 한다]이다. 말 그대로 인슐린에 의존해서 지내야 하느냐 아니냐에 따른 종류인 것이다.

인슐린의존성당뇨병은 주로 젊은 나이에 생기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는다. 인슐린의 분비가 거의, 또는 전혀 없어 반드시 인슐린 주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매우 빨리 발병하고 자주 혼수에 빠지기도 한다.

이에 반하여 인슐린비의존성당뇨병은 서서히 나타나고 식사, 운동, 경구혈당강하제로도 관리가 가능하나 경우에 따라 혈당조절의 개선을 위해 인슐린주사를 맞기도 한다.

2. 당뇨병의 증상

당뇨병의 대표적 증상은 소변을 많이 보고[多尿], 물을 많이 마시고[多飲], 음식을 많이 먹고[多食], 그리고 체중감소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형적인 증상들이 함께 있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고 심지어 아무런 증상이 없이 우연히 혈당측정으로 발견되는 예가 무려 15~20%나 된다. 즉, 無증상 당뇨병이



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증상의 있고 없고로서 당뇨병의 유무를 따지는 것은 영성한 자세이다.

여하튼 걸으로 드러나는 당뇨병의 증상들을 제차 알아보면, 앞에 이른 三多, 체중감소 이외에 단지 '목이 마르다' '몸이 가렵다' '눈이 흐리다' '피곤하다' '이가 아프다' '기운이 없다' 여자들은 '아래가 가렵다' '이가 아프다' '손발이 저리다' 등등으로 천양각색이다.

당뇨병을 三多病으로 별칭할 만큼 중요한 증상인 다음, 다뇨, 다식은 사례 빈도가 적은 증상인양 느껴지기도 할만큼 병의원을 찾는 당뇨병환자의 증상들은 다양한다.

잠시, 설명을 되돌려 三다가 오는 이유부터 살펴보는 것이 당뇨병

당뇨병의 대표적 증상은 다뇨, 다식, 체중감소 등이다.

〈표1 당뇨병의 증상〉

당뇨병 자체에 의한 증상	三多 체중감소	
당뇨병의 합병증에 의한 증상	피 부	가려움, 종기
	눈	시력감퇴, 피로
	심장·혈관	고혈압, 동맥경화, 뇌졸중과 관련된 증상들
	소 화 기	소화불량, 속 더부룩함, 잦은 변비, 설사
	신 경	사지마비, 통증, 임포텐스
	콩 팔	몸이 부음
	발	물집, 염증, 썩음
	기 타	폐결핵, 폐염, 질염, 냉

증상을 알아차리는데 도움이 되리라 본다.

혈액 속에 당이 지나치게 많으면 필요없다고 여겨지는 잉여분의 당은 소변을 통해 내보내기 위해 우리 몸은 애를 쓴다[多尿]. 몸안의 수분이 자꾸 빠지니까 몸안에 물이 모자라 갈증을 느끼게 되어 물을 많이 찾게 된다[多飲]. 소변을 많이 보다보니 당 또한 빠지고 덩달아 기타의 영양도 배출되어 몸안의 영양분이 부족되게 되고 자연 음식을 탐하게 된다[多食]. 아울러 몸안의 수분과 영양도가 빠지니 몸이 쪼개 된다[체중감소].

당뇨병의 증상은 많다. 그러나 먼저 이른바와 같이 전형증상이 없는 당뇨병도 많다. 그런 까닭에 당뇨병은 무슨 증상이 있어야만 의심

하고 진단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 당뇨병학회에서도 건의하는 바와 같이 다음의 경우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증상이 있든 없든 당뇨병학진을 위해 혈당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첫째, 뚜렷한 三多, 체중감소가 있으면,

둘째, 집안에 당뇨병환자가 있으면,

셋째, 두드러지게 똥똥하면,

넷째, 괜히 사산, 유산을 하거나 4kg이상의 아기를 낳으면,

다섯째, 임신 6~7개월이면.

이상으로 당뇨병의 종류, 당뇨병의 증상을 함께 살펴보았다.

〈필자=국립의료원 내과 당뇨병 교실 실장〉

三多, 체중감소, 비만 등의 증상이 있으면 즉시 혈당검사를 받아보도록 한다.